

중년 남성의 변태(變態) 성장기, <아빠는 변태중>(KBS, 아빠는 변태중)

천주희

어떤 중년의 남성이 옷을 벗는다.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고, 바지를 내린다. 부엌에서 밥을 먹던 아내와 딸은 알몸이 된 그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 그는 왜 옷을 벗은 걸까? 이 장면은 <아빠는 변태중>(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3)의 첫 장면이다. 주인공 변태중의 몸은 나이 들고 배 나온 몸, 심지어 머리털까지 개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볼품없는 몸이다. 한편 이런 볼품없는 몸은 명예퇴적으로 옷을 벗고, 누드모델로 옷을 벗기까지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는 지난한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변태(變態)중인 몸이기도 하다. 만일 이런 몸이 당신 앞에 출현한다면, 당신은 그 몸을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가?

몸, 몸, 몸: 잘나가는 몸, 별거벗은 몸, 이상한 몸

주인공 변태중(성지루 분)은 건설회사에서 차장을 지냈다. 입사에서 차장까지 고속승진을 한 엘리트였고, 나이지리아 공사도 따낼 정도로 능력 있는 소위 '한때 잘나가던 몸' 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직통보를 받고 실직자가 된다. 실직자가 된 그는 낮에는 취업정보센터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보낸다. 마침 이 사정을 지켜 본 후배 재관은 변태중에게 누드모델을 제안하는데, 누드모델을 하러 간 곳에서 하필이면 세입자 지연(한그루 분)을 만나 그 일도 무산되고 만다.

변태중은 실직 후에도 매일아침 회사유니폼을 입은 채로 출근한다. 회사유니폼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한 몸이라는 것을 숨기는 장치이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후배가 처음 누드모델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며 "(회사는) 잠시 쉬는 중" 이라고 변명했던 것도 그가 원하는 몸은 '잘나가는 몸'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별거벗은 몸' 이다. 매달 갚아야 할 집 담보대출금과 지불해야 할 딸 학원비 앞에 그는 자신이 벗어야 할 처지임을 직면한다. 잘나가는 몸과 별거벗은 몸은 이렇게 갈등하고, 불화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공존한다.

한편, 실직한 변태중의 몸은 가족에게 '이상한 몸' 으로 보인다. 제아무리 회사원인 척 연기를 하더라도 이미 실업자가 된 그의 몸짓은 어딘가 어색하다. 딸 신혜(배누리 분)는 아빠가 젊은 남자들의 복근을 훑쳐보는 것을 보고 다이어트(몸매관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연에게 잘해주는 것을 본 후, 아빠의 다이어트가 어찌면 지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것일 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아내 미란(방은희 분)에게 남편은 다 늦은 나이에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몸매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미란은 딸이 아빠가 이상하다고 말을 해도 야동을 보다가 걸린 것쯤으로 받아들인다. 미란은 이런 남편에게 호응하고자 빨간 속옷을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까지 준비한다.

변태중의 몸은 하나의 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몸이다. 그의 몸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한 구성되는 몸이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변태중의 몸은 잘나

가던 차장과 벌거벗은 실직자 사이에서 놓여있다. 그리고 관계나 역할에 따라 그의 몸은 바람을 피우려는 아빠와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남편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변태증의 몸은 자신이 놓인 맥락에 따라 회사원, 실직자, 아빠, 남편, 누드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구성되고,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를 넘나든다.

“저 사람들이 잘 차려입은 채로 그려졌다면, 고통이 보였을까요?”

지연은 변태증에게 실직과 누드모델 일을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고장이 난 수도와 창문을 고쳐달라고 한다. 지연의 집을 찾은 변태증은 수도꼭지를 고치다가 터져 나온 물에 몸이 젖게 되는데, 그때 지연은 변태증의 허리에 난 수술자국을 발견한다. 지연이 수술자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 또한 같은 곳을 수술했기 때문이다. 변태증은 자신의 상처를 알아본 지연에게 “고생했겠네” 라는 말로 응한다. 변태증의 응답은 아버지의 아픔을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했을 지연에 대한 위로이자 동시에 변태증이 자신의 상처 때문에 가족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변태증은 그동안 가족에게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못했다. 허리에 난 그의 상처는 회사를 위해 노조원이었던 동료들과 싸우면서 생긴 상처이다. 동료들을 배신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싶었던 회사가 남긴 상처다. 이런 그에게 지연은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 준 사람이자, 변태증이 자신의 고통을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드러내준 사람이다.

상처와 고통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오직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되고 제-서술 될 뿐이다. 누군가 그 상처에 섬세한 시선을 던지고 그 기원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 상처는 비로소 자기 언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상처가 말해질 때, 그것에 응답(response)하는 일이 바로 상처를 목격한 사람의 책임(responsibility)인 셈이다. 변태증의 상처를 목격한 지연에게 응답의 방식은 훗날 그림으로 나타난다.

지연에게 누드 크로키란 몸에 새겨진 여러 상처와 몸의 무늬를 재현하는 일이다. 누드 크로키를 바라보는 변태증에게 지연이 “저 사람들이 잘 차려입은 채로 그려졌다면, 고통이 보였을까요?” 라고 말을 건넨 것도 변태증의 상처와 고통을 그의 몸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연에게 변태증의 상처는 삶의 흔적이고, 몸은 고통이 머무는 장소이다. 후일에 변태증이 다시 미대 누드 크로키 모델로 섰을 때, 지연이 변태증의 (허리)상처에 주목한 것도 상처의 집으로 몸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기에 그의 고통의 자리는 울퉁불퉁한 몸에 편 삶의 흔적이었다. 지연이 그림을 통해 그의 몸을 재현했을 때, 그의 고통은 비로소 말해질 수 있었다. 고통이 말해진다는 것은 그동안 말해질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인정이다. 지연이 변태증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의 삶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인정(認定)이란 이처럼 주의 깊게 주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연의 인정을 통해 변태증의 ‘벌거벗은 몸’은 상처가 있는 몸, 흔적이 있는 몸, 사연이 있는 몸, 역사가 있는 몸으로 오롯이 출현한다.

변태에서 변태(變態)로

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끝으로 무엇이 애도할만한 삶으로 중요한가. - 주디스 버틀러

주디스 버틀러는 『불확실한 삶』에서 애도란, 자신이 겪은 상실에 의해 자신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고 한다. 변태증은 자신이 실직한 후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정작 자신이 상실한 것은 직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상실이란 이처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상실의 경험은 자신이 바뀔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애도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한다. 변태증은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세탁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뭐가 두려운 거야?” 그러나 “모르겠어...” 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안다. 그는 알몸인 채로 유리문을 다시 쳐다보며 웃는다. 웃는 자신은 또 자신을 보고 웃는다. 웃고 웃는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직면하게 된다. 그는 등 뒤에 놓인 버려진 밥숟을 본다. 자신처럼 이미 밥 짓는 기능을 상실한 밥숟이지만, 그것을 주워 집으로 돌아온다.

변태증은 자신이 포기하고 돌아섰던 강의실에 다시 찾아가 누드모델로 선다. 미란이 만류하지만, 태증은 무대에 오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자세를 취한다. 울음과 웃음이 그의 몸짓에서 교차한다. 그는 누드모델이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처음으로 잘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그에게 누드모델이란 배제된 몸으로써 자신의 벌거벗음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지금은 그 벌거벗음을 다시 입음으로써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그 사연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애도하는 과정인 셈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동굴 하나씩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가끔 그곳에 숨어들어 침묵한다. 때론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걱정 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동굴을 벗고 빠져나올 때, 나의 곁에 서줄 이, 누구인가.” - 신혜의 독백

머칠이 흘렀다. 신혜는 문예창작과 시험을 봤고, 신혜의 독백이 보여주듯이 태증과 미란과 신혜는 각자의 동굴에서 다시 나올 날을 준비한다. 지연은 신혜에게 크로키 전시회 초대장을 건넨다. 전시회장을 찾은 태증은 그곳에서 한 장의 그림을 몰끄러미 바라본다. 그 그림은 허리에 난 자신의 상처를 그린 지연의 그림이다. 그의 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몸이자, 사회에서 배제된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그림 속 그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낯선 몸으로 그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의 몸이 낯선 이유는 이미 한꺼풀 변태(變態)한 존재로 그 앞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 뒤에서 미란이 말을 걸어온다. 미란은 남편이 자신처럼 밥숟을 고치려다 다친 손목을 보고 슬그머니 웃음을 내려준다. 그리고 신혜는 초대장에 그려진 아빠의 상처를 살며시 어루만진다.

개인의 상처는 비밀과도 같아서 잘 드러나지 않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상처가 관계 속에서 공유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상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아픔으로 수용된다.

지연이 변태증의 상처를 목격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응답했기에 그의 상처는 예술작품으로 말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배제된 몸, 별거벗은 몸에 난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애도할 것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몸은 사회에서 잘 읽히지 않는 몸이고 드러나지 않는 몸이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벗은 몸'은 한낱 변태의 몸짓일 뿐이다. 변태증이 알몸으로 밤 골목길을 뛰어 다니는 것을 보고 쌀집 아저씨가 동네에 변태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전해들은 미란도 신혜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삶과 상처에 대해 인정한다면 변태적인 몸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몸이 된다.